

2018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위원장	결 재
						
개최일시	2019년 1월 28일 오후2시	회의장소	행정관 605호			
		담당부서	기획팀			
참석의원	박종성, 이정규, 강영숙, 김명림, 김주영, 김택동, 김화경, 신석하, 이재진, 황지수 (의장, 부의장 외 가나다순)	기록자(간사)	권외숙	기록일	2019.01.28	
		불참의원	박소진, 김영선			
		기타참석자	차용진(기획처장), 송일근(특수대학원 교학팀장), 이경미(예산팀장), 오현준(대학원 교학팀장)			
안건	1. 특수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2. 예산 자문 3.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논의사항] 1. 총장선출제도 개선 관련 안건상정의 건					
배포자료 및 기타	1. 2018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 부의안건 자료 2. 2018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 논의사항 관련자료					
■ 심의(자문) 사항 1. 박종성 의장은 총 의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2018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위원회가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2. 의장은 첫 번째 안건 특수대학원 학칙개정(안)을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① 특수대학원 교학팀장은 인적자원정책학과란 명칭 중 ‘정책’ 이 마치 국가정책과 관련된 학문을 탐구하는 것으로 인지되는 혼란을 줄이고자 학과명을 인적자원개발학과로 변경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인적자원개발 전공명이 다른 3개의 세부전공(조직컨설팅, 리더십교육, 커리어상담)과 레벨이 다소 맞지 않고 전공특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전공명을 인재개발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함을 설명함 ② 의원들은 명칭변경에 대한 학칙개정인지 확인하고, 특수대학원 교학팀장은 그러하다고 답함 ③ 의장은 의원들의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학칙을 원안대로 통과함 3. 의장은 두 번째 안건으로 예산 자문(안)을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① 예산팀장은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교비)에 대해 설명함 ② 의원들은 아래와 같이 자문함 가. 미래교육원의 경우 수익부서로서 수강료수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높은 보수의 외부 교원을 영입하고, 업무추진비 지원 등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적음을 언급하며,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글로벌사회교육원장의 재임용 기준이나 급여수준, 업무추진비 수준 등을 결정하는 평가기준이나 절차가 부재함을 지적하고, 개방형 직위에 대한 임용 및 재임용절차, 평가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함 나. 우리대학 기부금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기부금 수입 예산이 현실적으로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기부금 수입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뚜렷한 실적이 기대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경 수입 예산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점검해야 함 다. 건축 설계변경으로 추경예산 지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된 데에 대해 설계변경이 불가피 했더라도 설계변경 자체와 변경의 범주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변경의 타당성 검토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2018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의장

결
재

공사 단가에 대한 외부의 검증을 거치는 등의 사전, 사후 절차를 갖춰야 함

라. 공사비용의 경우 낮은 의사결정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발생한 비용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된 사항으로, 빠른 의사결정 구조 시스템을 보완하여 차후 유사한 사항에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

라. 현재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수입이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출이 보수가 차지한다는 점에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임을 지적하고, 구성원들이 위기 의식을 가지고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내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자문함

③ 의장은 추경에 대한 의원들의 추가자문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9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④ 예산팀장은 2019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함

⑤ 의원들은 아래와 같이 자문함

가. 수익부서의 수입 예산에 대해 책정근거를 마련해서 현실성 있는 수입예산을 편성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을 자문하고, 추가의견으로 기업에서 수익부서의 수익창출은 최소 3~5년 이후로 기대하는 것으로 당장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볼 것을 당부함

나. 숙대 내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수익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교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해 볼 것을 제안하고, 국제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마련은 선투자 없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업임을 지적하며 현재 숙대가 잘 알려진 유리드믹스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현재 시점에서 큰 투자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을 자문함

다. 기부금 수입의 경우 2018년 결산 목표에 미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대비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작년도 기준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현실성을 반영한 예산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수입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현실적인 수입기준을 마련하여 기부금 수입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함

⑥ 의장은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추가자문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고, 예산 자문을 마친다.

4. 의장은 세 번째 안건으로 대학원 학칙개정(안)을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① 대학원 교학팀장은 석사학위과정에 빅데이터분석융합학 학과간 협동과정을 신설하고, 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에 기후환경에너지학 학과간 협동과정 신설에 따른 학위명, 참여학과에 대한 학칙개정임을 설명함

② 의원들은 아래와 같은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함

가. 협동과정 신설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과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요함

나. 협동과정에 참여학과 결정 및 협동과정신설을 통해 얻는 장점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논의를 전제로 협동과정 신설이 필요함

③ 의장은 의원들의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학칙을 원안대로 통과함

5. 의장은 총장선출제도 개선 촉구안에 대한 안전상정요청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안전상정을 요청한 황지수 학생평의원에게 설명을 요청함.

2018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위원장

3월 24일

결
제

① 황지수 의원은 대학의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총장선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학생, 교원,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후보 선출제도 개선 위원회의 2019년 3월 이전 구성 및 규정 8월 이전 마련을 대학과 법인에 촉구하는 총장선출제도 개선 촉구안을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함

② 의장은 해당내용이 대학평의위원회 규정상 회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의원들의 의견을 요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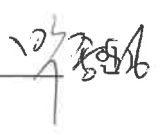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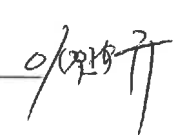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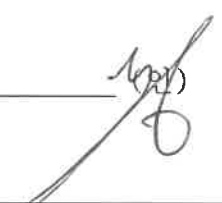
③ 이정규 의원은 대학평의위원회의 설립목적을 살펴봤을 때 대학평의위원회는 학교 발전에 대해 검토해주고 의견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평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사항들은 총장의 결정권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총장선출제도 개선 촉구안은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법인과 대학에 촉구하는 것으로 대학평의위원회의 대학발전을 위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총장선출 제도개선 촉구안은 충분히 대학발전계획 자문과 관련하여 대학평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만한 의제라는 의견을 제시함

④ 의장은 총장선출제도에 관한 사항이 현행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상의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또한 규정 상 대학평의위원회의 역할이 학칙개정, 발전계획 등에 대한 심의, 자문인 바, 평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고, 우리대학 법무감사실에 자문을 요청하여 본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후 재논의하기로 함

7. 16:40 회의를 마침

2018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 참석의원 서명

의 장 박 종 성 	부위원장 이 정 규 
의 원 장 영 숙 	의 원 김 명 립 
의 원 김 주 영 	의 원 김 태 동 
의 원 김 화 경 	의 원 신 석 하 
의 원 이 재 진 	의 원 황 지 수 